

# Humanities of GRATITUDE



종교 =

성스러움

추구

예술 =

아름다움

추구

학문 =

진실

추구

**GRATITUDE**  
**(조건)**

# GRATITUDE

## 예술 · 종교 · 학문의 출발점

Humanities 인간학, 인문학 : 人-間 을 이해하려는  
노력

학문 : 알 수 없는 것에 관한 탐구

종교 · 예술 :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 
방법



Only God knows.

All that I know is that I know  
nothing.

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 
미지의 것으로 이끈다.

**Everything is grace.**

감사는 가장 위대한 덕목들 가운데  
하나일 뿐 아니라, 다른 모든 것의 어  
머니이기도 하다.

Emil Michel Cioran



주 하나님,  
이 고통을 주신 당신께 감사하나  
이다.  
내 주여,  
당신의 뜻이라면  
백 배의 고통을 더 주소서.

성 프란체스코



현재 갖고 있는 것을 바라고 감사한다면 내면의 만족은 계속된다.

달라이 라마





비위 맞을 때의 수천 번 감사보다  
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 
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.

아빌라의 성녀 테레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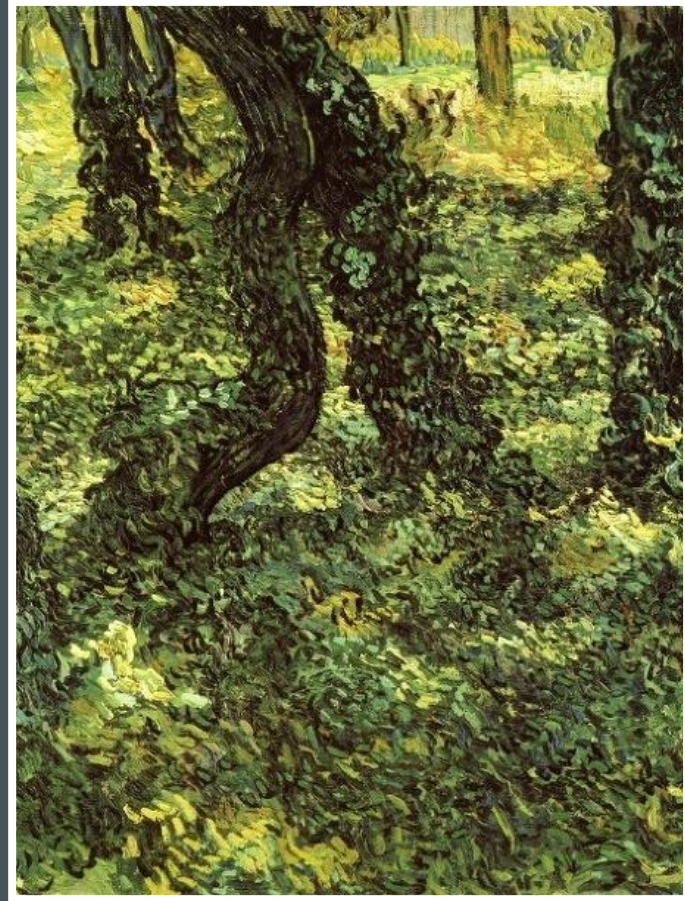


미지의 존재에 다가가는 것은  
사랑만큼 고난의 일.

감사나눔은 고통 속에만 쾌락이  
있음을 알게 한다.



TREE WITH IVY  
IN THE ASYLUM GARDEN



TRUNKS OF TREES  
WITH IVY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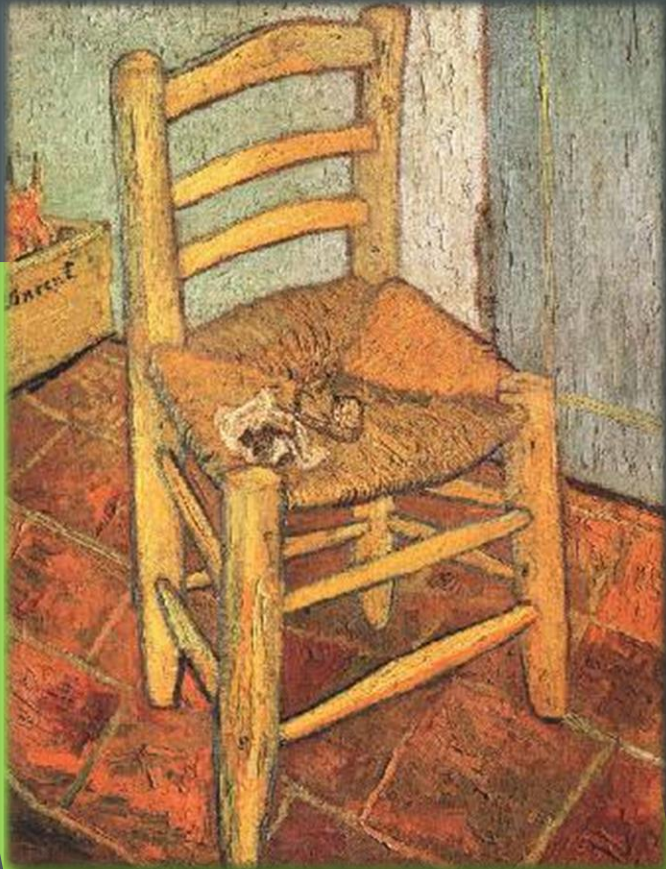


VINCENT, DON MCLEAN



<침실>





<빈센트의 의자>



<고갱의 의자>



<감자 먹는 사람들>



# 감사의 어원 탐구

Gratitude, thankfulness, gratefulness, appreciation

Middle English, from Old French from *Latin*,  
gratitudinem, gratus, gracia, **pleasing**

↳ 산스크리트 gurtas(종교 축제)

귀의하다 obeissance

존경하다 adorer

알게 되다 reconaissance



# 감사는 공경할

고마하다: être <sup>敬</sup>aimé, affectionné

<1880 한불사전, 186>

어딘 사람을 고마하야 尊者 | 라 하니라

<1447 석보상절3:7b> ,

고마 경(敬) <1576신증유합초, 下1b>

고마 건(虔) <1576신증유합초, 下3b>

고마 흠(欽) <1576신증유합초, 下9a>

감사하다: 옛말 '감샤하다' '感謝' + 다.(16세기초)

고맙다(感辭) <1895국한회어, 25>

# 헤겔

I. 생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'세계'와의  
상관관계를 발견하고,  
그리하여 이 성스러운 세계에 감사한다.

II. 형식적으로 말하면, '감사'란 자신의 경험적  
현실이 자신을 훨씬 넘어선 보편자에 의해  
구성되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.

# 하이데거

감사는 “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” 보상 정신과 보수 정신의 기원이다.

*Questions III-IV, p. 71 et sq.*

# 감사하다 - 정호승

태풍이 지나간 이른 아침에  
길을 걸었다  
아름드리 플라타너스 왕벚나무  
들이  
곳곳에 쓰러져 처참했다

그대로 밑둥이 부러지거나  
뿌리를 하늘로 드러내고 몸부림  
치는  
나무들의 몸에서  
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  
왔다

키 작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았  
다

쥐똥나무는 몇 알  
쥐똥만 떨어뜨리고 고요했다

심지어 길가의 풀잎도  
지붕 위의 호박넙쿨도 쓰러지지  
않고  
햇볕에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



# I thank → It thanks

진정한 감사는 무의식으로부터 비의지적으로 우러나오는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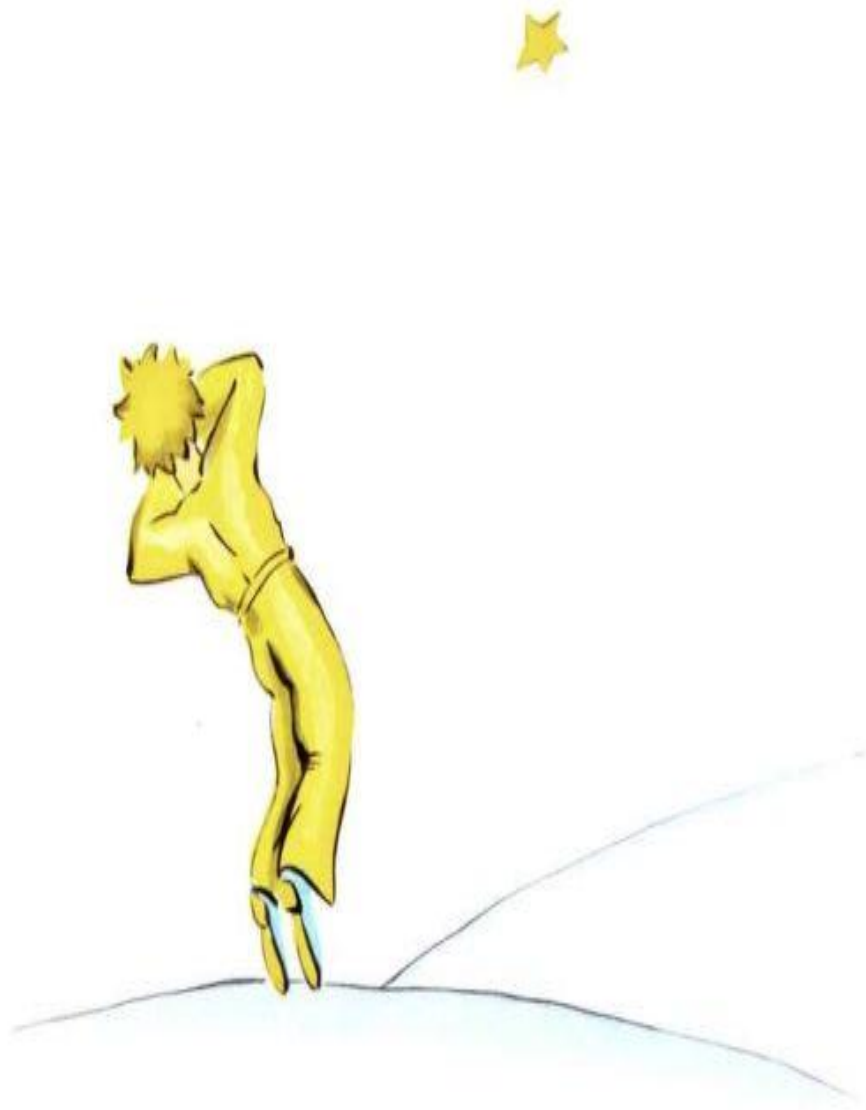
It rains, it blows 처럼 의지적 주체가 없다.

합리주의 철학 : 데카르트, 나는 생각한다 Cogito

경험주의 철학 : 러셀, 카르납, It thinks(within me)

메를로 폰티 : 자의식으로서의 의식 개념에 이의 제기







50 Cinquante Francs

N 047321635



#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지구를 떠난 어린 왕자

- 장미와 이별하다
- 여섯 별을 유람하다
- 오직 의미 있는 직업 하나를 발견하다
- 인간과 버섯
- 지구 사막에 떨어지다
- 여우 만나 길들이다
- 뱀 만나 길들이다
- 생텍스 만나 길들이다
- 스스로 뱀에 물리다
- 장미에 대한 고마움 안고 B612로 귀환

## 사랑을 배움

"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. 너는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.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. 그러면 내가 네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."

## 수수께끼 같은 존재

"네가 측은해 보이는구나. 무척이나 연약한 몸으로 이 돌맹이 투성이 지구에 왔으니. 네 별이 몹시 그리울 때면 언젠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. 난....."

"응! 아주 잘 알았어. 헌데 왜 그렇게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?"

"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."

## 법정의 감사

<어린 왕자>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게 소개해 준 벗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벗이다. 너를 대할 때마다 거듭거듭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. 그 벗은 나에게 하나의 운명 같은 것을 만나게 해주었다.

## 신학자 이신건의 서평

자연과 생명을 친구로 삼는 사랑만이 순수하고 영원하며 풍요한 삶의 샘이 된다는 진리를 저자는 갈피마다 웅변한다. 만약 내가 <어린이 신학>을 쓰기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, 아마도 <어린 왕자의 신학>을 썼을 지도 모르겠다.

# 뫼르소, 죽기 전 날

이방인으로 태어나다

- 엄마 장례식에 망설이다 참가하다
- 엄마의 늙은 새 연인을 알게 되나 관심 없다
- 장례식 후 마리와 성관계를 맺다
- 아랍인을 어찌다 죽이다
- 재판 받으면서도 여전히 엄마를 남으로 여기다
- 남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다
- 홀로 사는 것이 파라다이스



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생각했다.  
왜 만년에 엄마가 '약혼자'를 택했었고, 왜 새  
로운 출발을 즐기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  
같았다. ... 별자리와 별들이 가득한 이 밤을 마  
주하고

나는 난생 처음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에 나를  
열었다. 이 세상이 그토록 나와 닮고 그토록  
형제다움을 깨닫고 나는 내가 행복했었음을  
느꼈고, 또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... 내게  
남은 일은 처형 당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 
오는 것,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은 마침 석 우 절  
로 맞아주길 염원하는 것이다.

같음,  
다름의 전제조  
건

나를 위한 나

내가 안다고 여기는 나

내가 원하는 나

다름,  
같음의 변화되어  
가는 모습

남을 위한 나

내가 모르는 나

내가 원치 않는 나

감사를  
통해



Relationship to altruism

- Religion = re + lier(다시 관계맺음)

- Art = teckné = 진실을 조건으로 하는 감사함의 길

- Human science(s) = 人文學

= 타인으로 있음에 고마움 인식 탐

구

- humanitas < Humanitas doctrine 人間性

Religion

Art

Human  
Science

Gratitude

## ■ 감사의 조건(나를 버림 脫自我)

- "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 
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  
(따르코 복음서 8장 3절)

- 내 작업에 내 가슴과 영혼을 쏟아 부  
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잃  
었다.

(~~put my heart~~ and my soul into my work,  
and have lost my mind in the process.



감사나눔은 조용한 혁명

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

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 감사



IT thanks for  
NOTHING.